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6 Number 5 ● 5 2008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생명과 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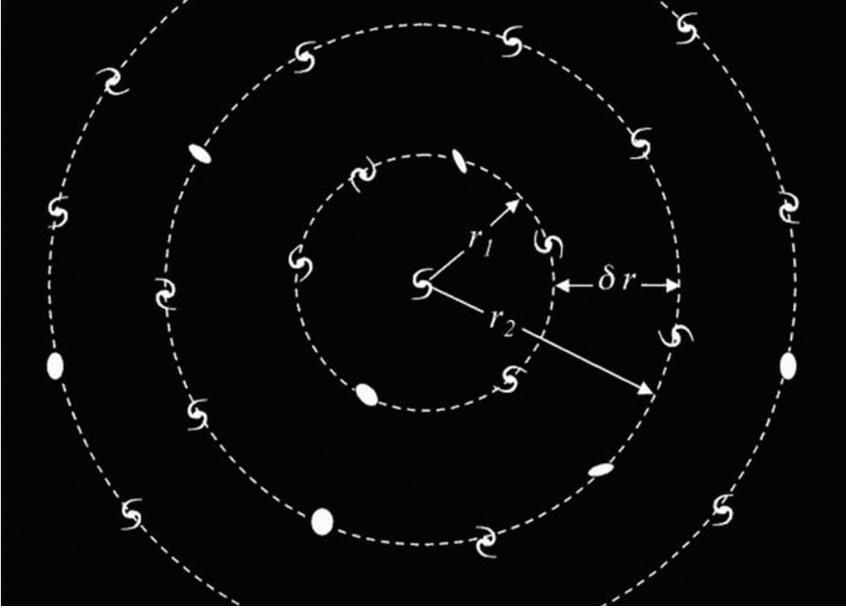
지구 밖에도 생명체가 있을까?



우주는 참으로 방대하다. 별의 수는 모래알처럼 많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별들이 깔려 있는 큰 우주 속에 떠 있는 작고도 작은 지구. “이 지구 외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까?” 창조과학 세미나 중 꼭 나오는 질문이다. 수많은 UFO 얘기, 외계인 영화, 달 착륙, 화성탐사, SETI 프로그램, NASA 프로그램 등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관한 얘기를

대중매개체를 통해 자주 들어 왔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사실인양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답을 미리 드리자면 생명체는 지구에만 존재한다. 창조주께서 지구 외에는 생명을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우주를 살살이 뒤져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고 비판한다. 그리고 그런 비판이 언뜻 듣기에는 그럴 듯 하지만 천문학자들이나 이것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는 어떠한 과학자들도 여기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성경말씀 속에 우주의 방대함이나 별들의 무수함에 관해서 묘사하는 곳은 여러 군데 있으나 지구 외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구절은 한군데도 없다. 오히려 성경은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 첫날에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넷째 날에 우주를 만드셨다. 지구의 기원,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기원은 창세기 1장 6일의 창조기사 외의 다른 데에 근거를 둘 수가 없다. 같은 장 14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은 사람에



관찰 된 다른 은하들은 생명이 존재하는 유일한 지구를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놓여 있다.

계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알게 해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간 6일 중에도 생명이 지구 외 다른 어느 곳에도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지구 외 다른 곳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이 지구 외 다른 곳에 생명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구 외의 다른 곳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에게 창조주 자신을 알리는 유일한 책인 성경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또한 성경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첫 사람인 아담의 죄로 인해 우주의 첫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있었고 마지막 심판 후 우주가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간다는 기록은 누가 주인공이고 무엇이 배경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을 가져 오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사역은 이 지구 위에 창조주 자신의 형상을 본떠 만드신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천억 개의 해와 같은 항성이 은하계 안에 있다. 그런 은하계가 천억 개 이상 우주 안에 있다. 이 모든 우주 안의 별들이 모두 지구처럼 물과 온도와 빛이 적당히 있다고 해도 생명의 자연발생은 확률적으로나 열역학 제2법칙으로 전혀 불가능하다. 세포 안의 핵산은 복잡한 정보이다. 생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수만 가지의 효소는 모두 복잡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생명체 안의 단백질은

모두 왼쪽형의 아미노산으로만 되어 있다. 정보는 정보를 주는 자로부터 그리고 설계는 설계자로부터 올 수 밖에 없다. 우주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느 곳에서도 아무 것도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한줌의 흙 안에도 수백 만 개의 작은 생명체가 우글우글하는 이 땅에서 생명이 자연 발생하지 않았으면 생명은 이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자연 발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계에 생명이 존재 하느냐는 질문의 해답은 지구 위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과학적인 증거를 꼭 추구하는 분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진화론을 믿었던 무신론자인 고 카알 세건의 아이디어로 외계에서도 생명의 자연발생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국민이 바친 세금 수 천만 달러를 소비하여 거대한 레이더 장치를 푸에르토 리코에 건설했다. 이를 통해 외계인으로부터 오는 전파를 찾기 위해 수년동안 분석한(SETI) 결과 전혀 의미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또한 UFO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 보면 이들은 기후현상, 기상측정을 위한 풍선, 비행기, 구름에 의한 빛의 반사, 군사기밀 장치 등을 UFO로 오해 한 경우라는 것이다. 또한 우주선이 실제로 별과 별 사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사실이 많이 있다. 즉,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 아폴로 달 우주선의 속력으로 여행한다 해도 87만년 걸리고 빛의 속도 십분의 일로 달려도 43년이 걸린다. 그리고 2톤 무게의 우주선이 빛의 속도의 십분의 일로 비행하는데 요구되는 에너지의 양은 엄청나다. 무거운 양의 연료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또한 우주선 중 0.1 gm의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빨리 달리는 우주선에 충돌하면 10톤의 TNT 폭발력으로 폭발이 일어나므로 우주선의 여행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런 설명이 전혀 믿어지지 않거나 그래도 UFO를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외계인과 실제로 접촉을 한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신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확신 맞아서 의심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딤펴전 4:1, 2)

“악한자의 입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9-12).



ACT NEWS

순회세미나 | 탐사여행 | 창조과학 세미나

뉴저지, 뉴욕 순회세미나

이제만 부회장은 지난 3월 7-16일 열흘간 산돌교회(담임목사 김현준), 임마누엘 장로교회(담임목사 우중현), 찬양교회(담임목사 허봉기, 이상 뉴저지), 뉴욕 영광장로교회(담임목사 박태성)를 순서로 뉴저지와 뉴욕의 동부지역에 창조과학 세미나를 순회 인도했습니다. 총 6개의 주제로 22회의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기존의 진화론적 틀에서 벗어나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의 네 담임목사님들께서는 작년과 올해 창조과학탐사여행과 빙하 시대 탐사여행을 모두 참석하시고 교회에서도 전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울러 뉴저지에 있는 AccessBio의 실험실에서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은 한국 교민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창조과학 세미나가 좀처럼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순회 세미나는 동부 지역에 창조과학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초석이 되는 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말에 뉴욕 성결교회에서 다시 한번 뉴욕지역에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연합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난 3월 24-26일 3일간 북미의 각 지역에서 모여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가졌습니다. 시카고(18명), 애틀란타(16), 덴버(2), 워싱턴 DC(2), 뉴저지(3), 라스베가스(2), LA(17) 그리고 본국(1)에서 총 50명이 모여 탐사여행을 가졌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시카고의 중서부 지부에서 시작하여 다른 주까지 확대 모집하였는데, 초과된 신청으로 아쉽게 여러 분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레터나 기존에 창조과학 선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석한 분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이와 같이 각 지역에서 모여 탐사여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그랜드캐년, 자이언캐년, 브라이스캐년 등 서부 3대 캐년을 돌며 노아홍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오는 5월에도 이와 같이 모집하는 탐사여행이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5월 탐사여행 OPEN!!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3박 4일간의 창조과학 탐사여행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1차 출발은 LA에서만 하고 2차 출발은 LA와 라스베가스에서도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 희망자는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차 탐사여행

| | |
|------------|---|
| 여행 날짜 | 2008년 5월 5일(월) - 8일(목) |
| 경유지 | LA - 모하비 사막 - 그랜드캐년- 글렌캐년 댐 -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 Red Rock 캐년 |
| 출발 장소 및 시간 | LA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 8:00 AM |

2차 탐사여행

| | |
|------------|---|
| 여행 날짜 | 2008년 5월 19일(월) - 22일(목) |
| 경유지 | 라스베가스 - 모하비 사막 - 세도나 - 규화목 공원 - 페인티드 사막 - 그랜드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
| 출발 장소 및 시간 | LA에서 출발하실 분: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 6:30 AM 타주에서 오시는 분: 라스베가스 사하라 식당 낮 12:00 PM |

제 5차 유학생 탐사여행 안내

서울 온누리교회의 “유학생교회 선교회” 와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유학생 탐사여행은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 후 과정에 있는 분들과 배우자 및 자녀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 혜택은 유학생과 담당 지도자에게만 주어집니다.

- 일시 : 2008년 8월 4일(월) - 6일(수)
- 경유지 : 라스 베가스 - 모하비 사막 - 세도나 - 규화목 공원 - 페인티드 사막 - 그랜드캐년

참가 희망자는 www.HisArk.com의 ACT News란의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세미나 안내

5월에도 창조과학세미나는 이어집니다. 특히 일리노이주에서 개최되는 세 번의 창조과학 세미나 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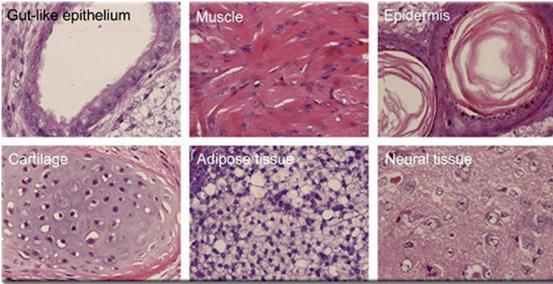
| 세미나 날짜 | 장소 및 강사 |
|---------|--|
| 5/1-3 | 락포드 한인장로교회 이재만, 815-974-7778, IL |
| 5/18 | 레이크뷰 한인장로교회 Youth 이동용, 630-400-6114, IL |
| 5/24-26 | 시카고 성경장로교회 이동용, 630-400-6114, IL |

Science News

생명을 위한 획기적인 줄기세포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성체줄기세포는 많은 장점들이 있음이 잘 알려져 왔고 실제로 70 종류 이상의 질병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들은 생명을 죽이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위스콘신과 일본의 과학자들이 생명을 죽이지 않고도 배아줄기세포의 능력을 가진 성체줄기세포를 만드는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 성공은 피부세포에서 배아줄기세포의 능력을 갖춘 성체 줄기세포를 만든 것으로 줄기세포 연구 분야에서 연구의 추를 성체줄기세포로 기울게 할 것이다.



줄기세포

인 선을 넘지 않는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더욱 발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관련정보:<http://sciencenow.sciencemag.org/cgi/content/full/2007/1120/1>

생명체를 만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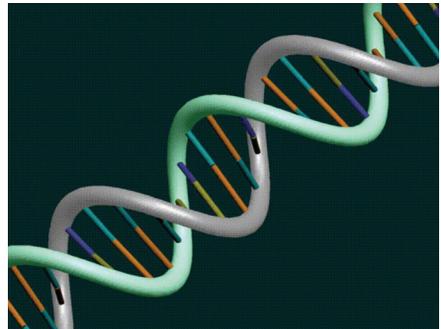
미디어의 보도에 의하면 한 연구 팀이 인공 생명체를 만들기 직전이라고 한다. 미국의 J. Craig Venter Institute의 DNA 전문가인 Craig Venter 사장이 “지구에서 처음으로 인조 생명체를 창조하였다고 발표하려고 한다”라는 영국의 가디언지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생명 전체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

성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은 실제로는 유전정보가 들어 있는 합성 염색체를 만들었을 뿐이며, 이 인공 염색체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그들의 지성을 사용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박테리아 염색체를 모델로 해서 만든 DNA이다. 그들은 이 염색체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박테리아 세포에 삽입시킬 것이다.

그들이 사용할 모든 부품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부품들은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창조하신 생명체 속에 존재했던 것들이지 긴 시간을 들여 과학자들이 땀 흘려 만든 것들이 아니다.

관련정보:<http://www.guardian.co.uk/science/2007/oct/06/genetics.climat->



DNA



바벨탑?? 바벨탑!!! (1)

“하 나님께서 두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인종들은 어떻게 생겼으며 사람들이 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지요? 역사 기록을 보면 피라미드는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닌가요?” 아주 궁금하고 성경 역사가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질문들이다. 성경은 모든 궁금한 질문들에 답을 주지는 않지만 모든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빠짐 없이 기록하였다. 바로 역사적인 바벨탑 사건이 앞의 질문들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반항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11장에 아홉 절로 간략하게 소개된 바벨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사람의 기원에 대해 다양한 유인원 혹은 사람으로 진화된 시기가 인종마다 달랐을 것이란 과거의 진화론적인 생각과는 달리 사람의 유전정보를 해독한 Human Genome Project, 가계연구를 통한 인류의 기원, 인류는 한 남자(Y 염색체 연구)와 여자(미토콘드리아 DNA 연구)로부터 나왔다는 연구 결과들은 첫 두 사람이 모든 인류의 기원이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성경은 이미 수천년 전부터 이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류 역사 어느 시점까지는 성경의 기록처럼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

음에 틀림 없다. 그러면 다양한 언어의 기원은 무엇일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노아 홍수 후 사람들은 시날(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유프라테스-티그리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고 바벨탑을 쌓으며 도시를 건설하며 하나님께 또 다시 반역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들의 죄는 세상에 흠어져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창 1:28; 9:1)과 자기 이름을 내고 창조주이며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대치하고자 하는 교만함이었다.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 생활의 중심으로, 연합과 힘의 상징으로 거대한 탑을 건설했을 것이다. 사탄은 맨 처음 하와에게 그들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고 바벨탑 사건을 비롯하여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는 시도는 수도 없이 많았다.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겸손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완악하고 반항하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임시적인 해결책으로 언어를 혼잡하게(confound)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온 세상에 흠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다. 바벨에서의 반역은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창 10:5; 20: 31)가 생겨나게 했고 이로 인해 지금도 인종과 종교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전쟁과 분쟁이 이 땅에서 멈출 날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다양한 언어와 인종과 문화(예, 석기시대, 피라미드 등)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나게 한 역사적인 바벨탑 사건은 AiG의 기간지 <Answers> 2008년 4-6월호를 중심으로 좀 더 상세하게 연재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8)

정하신 질서

하 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11, 12)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며 드러난 육지에 식물을 창조하시는 모습이다. 이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종류(kind)”이다. 이 단어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창조 6일간 “종류”라는 단어가 10번이나 사용되었다. “종류”는 히브리어로는 “min”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에 “한계를 정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각기 종류라는 한계를 정하시며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간혹 성경에서 “종류”와 생물학에서 말하는 “종(species)”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이다. 아마 생물시간에 배운 “종, 속, 과, 목, 강, 문, 계”라고 하는 생물의 분류방법을 잘 알 것이다. 여기서 “종”은 생물을 구분하는 최소의 단위를 말한다. “종”은 영국사람인 John Ray(영국, 1628-1705)가 처음 사용하였는데, 당시에 그는 모양의 차이를 가지고 생물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유전학이 발달한 최근에는 “교배가 가능한 한 생물의 집단”을 칭한다. 쉽게 말하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생물끼리를 묶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의대로 “종”을 명쾌히 구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형태학적으로는 종의 특징을 갖고 있는 듯 하면서 교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

고, 외견상 차이가 있으나 교배가 가능하여 자손을 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형태를 통하여 다른 종으로 분류되었지만 교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쉬운 예를 들면 “개 과” 안에서 다른 종으로 분류되었지만 서로 교배가 가능한 것들이 있다. “고양이 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를 넘어서 교배가 이루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물들 사이에 교배가 가능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한계를 구분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표현이 바로 “종”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한정하신 “종류”는 종보다는 그 범위가 다소 넓다고 할 수 있다. 창조과학자들은 성경에서 “종류”는 어떤 생물들은 기존의 “종”과 일치하지만, 어떤 것은 “속”, 어떤 것은 “과”까지도 확대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생물에 따라 “과”의 범위 안에서도 교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봄이 되면 온갖 꽃들이 피어난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 참으로 아름답다. 이때 벌이나 나비들이 여러 꽃들을 돌아다니며 꽃가루를 묻히고 다닌다. 그러나 벌들이 온갖 꽃가루를 갖고 있어도 진달래 꽃에 앉으면 진달래 꽃에 있는 암술은 다른 꽃가루와는 반응하지 않고 진달래 꽃가루 하고만 반응을 한다. 그리고 다음해 봄이 오면 여지없이 진달래 꽃에서는 진달래가 나온다. 여기에는 꽃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날아다니는 새, 육지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유전적인 한계 안에서 교배가 이루어진다.

생물분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린네(스웨덴, 1707-78)는 창세기 1장의 “종류”가 무엇일까 발견하려는 성경적 믿음에서 생물 분류를 시도하였던 사람이다. 그는 “종이란 일정 불변한 것으로 신이 창조한 종의 수는 불변이며 신중은 더 이상 없다”고 정리하였다. 물론 그때는 유전법칙조차 발표되지 않았을 때 이므로 종이란 단어를 쓰며 이런 표현을 하였지만, 그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심어놓으신 한계인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창세 이래로 새로운 종류(!)가 발생해야 할 진화는 어디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재만
창조과학
선교회
부회장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 24:23)



Expelled, No Intelligence Allowed

지난 주에는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 인간지능 프로젝트의 팀장이었던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의 “The language of God” 이란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명성 있는 과학자로서 강연 도중 본인은 예수를 영접한 born-again Christian이라는 간증도 하여 박수갈채도 받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지적설계(Intelligent Design) 이론도 수용할 수 없고 오직 유신론적 진화론(Theistic Evolution)만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성경적/초월적 창조론을 수용하지 않는 크리스찬 과학자들도 많은 경우 지적설계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자신있게 말하였다. 진화론이란 모든 것이 설계 없이 자연과정(natural process)에 의해 저절로 우연히 되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창조주를 믿으며 동시에 세속적 진화론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는 중책을 맡은 명성있는 과학자로서 과학의 패러다임인 진화론에 조금도 이의를 달아서는 안 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 해가고 있는지 모른다.

C.S. Lewis는 예수에 대해 오직 다음의 두가지 입장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댄 미치광이이므로 그렇게 취급하던지 아니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현으로 인정하던지 둘 중의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훌륭한 성인 또는 선지자였다.” 이런 입장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마치 이와같이 매우 어정쩡한 견해가 아닐 수 없다. 신이 있기는 있는데 하는 일 없이 모든 것을 자연과정과 확률에 맡긴다? 한동안 많은 지성인들을 현혹하였던 이신론(deism)과 아주 비슷한 입장이다.

세속적 학계에서 일하는 크리스찬 학자들의 고충과 핍박은 의외로 심각하다. 곧 4월에 개봉될 Ben Stein (lawyer, book writer, professor, presidential speech

writer, TV show host) 제작 영화 “Expelled, No Intelligence Allowed”는 바로 그것을 소재로 삼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크리스찬 학자들이 학계에서 창조(creation)나 지적설계(intelligence design)에 대해 언급하다가는 엄청난 불이익과 핍박을 받는 현실(사직을 강요 당하거나 테뉴어를 받지 못하고 연구비를 받지 못하는)을 밝히 드러낸 영화이다. 한 예로 Baylor 대학 지적설계센터 director였던 윌리엄 템스키 박사는 진화의 과정은 모두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적설계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생물학과 교수들의 탄원과 함께 사직을 당하였다. 남침례교 재단 대학인 Baylor 대학에서 이 정도이니 다른 일반 대학에서의 상황은 어떠하랴? 더욱이 성경적/초월적 창조를 말한다면 그 핍박은 훨씬 더 심하리라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 남기 위해 크리스찬 학자들은 앞에 언급한 폴린스 박사처럼 지적설계마저도 부정하고 진화론자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수용하며 자신을 정당화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 영화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왜 진화론자들이 진화에 대한 비판(criticism against evolution)에 그와같이 광적으로 반응하는가? 결론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란단다.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란단다.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란단다.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과학이 만일 비판에 대해 열려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원의 문제는 참과학(operational science)이 아닌 전제(pre-supposition)의 문제이다. 그 전제에 따라 이 피조세계에 남겨진 증거(evidence)들이 다르게 해석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연과정(natural process)으로만 설명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의 헌법이다. 과학자들은 이 틀 안에서만 논문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과학계의 상황은 진화론-old earth 일색일 수밖에 없다. 만일 조금이라도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난다면 학술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크리스찬 학자들이 이런 상황 아래에서 점점 타협하다 보면 이신론/유신론적 진화론이나 자유신학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성경은 사라지고 인본주의만 무성한 유럽의 교회와 같이 될 것이다. AIG-ICR에서 발행되는 peer-reviewed creation journal등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탁월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탁월한 연구논문을 이런 학술지에 발표하기 시작한다면, 크리스찬 학부모들이 합심하여 위 영화와 같은 근본적인 공교육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기 시작한다면, 미래의 상황은 조금 달라질지도 모른다. 영적전투는 일선 선교지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나 공교육의 현장에서도 지금 치열하게 치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진리 쪽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요17:14)



김무현
남부지부장,
해양토목
공학박사

진화론 과학자의 히탈

창조론 과학자의 기쁨



창조론의 열매/리스터의 이름을 딴 구강세척제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은 세포, 그 속에 있는 수 천 종류의 단백질들 중에 인슐린에 영향을 받는 단백질들의 이름들을 외우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맨 처음에 그 단백질들은 수천 혹은

수만 명의 박사들과 대학원생들이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재원과 시간을 들여 실패를 거듭하며 연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발견되었고 그 성질들을 알아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진화를 통한 진리 탐구는 진화의 개념 자체 때문에 막연하기 그지 없다. 진화라는 것은 아무 예측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저절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극도의 무질서 속에서 공통적인 원리나 법칙을 발견할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지난 3월호에 실린 라일(Lisle) 박사의 말처럼 ‘진화론자들이 과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그들이 진화의 무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말할 것과 같다. 생명체가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점진 발달되었을 것이라는 진화 가설은 열역학 법칙 같은 과학 원리들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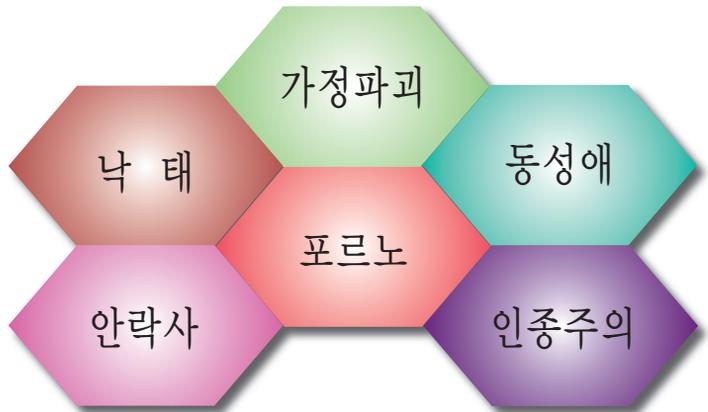
50년 전만 해도 인슐린에 대한 지식은 아주 미미했지만 분명한 것은 인슐린은 혈당을 내린다는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의 경우는 진화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과거 주장의 번복과 새로운 가설의 첨가만 있을 뿐이다. <중의기원>의 저자 다윈은 “왜 지질 층은 중간고리(missing link)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다. 또, 대영 박물관

관의 고생물학자 패터슨(Colin Patterson) 박사는 “내가 20년 이상 연구해 보았지만 진화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다른 학자들에게 진화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 봤지만 한 사람도 알려 주는 사람이 없었다. ... 고등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까지 말했는데 그 이유는 진화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은 진화론 과학자들에 비하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말씀(명령)하시니 종류 그대로 나타나게 된 기적이었다 (3월호 창조론: 초과학 참조). 생물학적 실체들이 창조됨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믿은 죠셉 리스터(Joseph Lister, 구강 세척제 “LISTERINE”의 기원은 성공적인 외과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도구들을 살균하면 저절로 생길 수 없는 세균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완두의 유전 물질이 갑자기 생겨났다 없어지기도 한다고 믿었다면 멘델은 유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기원에 관한 연구라면 답을 알고 있는 창조과학자와 무질서를 믿는 진화학자의 진



진화론의 열매들

리 발견 가능성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이고 예외가 없는 열역학 제 1 법칙은 물질(에너지)이 소멸되거나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엄청난 양의 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열역학 제 1 법칙을 무시하고 물질이 만들어진 사건이 과거에 있었음에 틀림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창조과학자는 그 사건이 엄청난 “창조” 사건 즉 창세기 1장 1절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창조의 기적임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무한히 뜨겁고 무거운 점 (singularity)이 폭발했다는 상상의 비명은 무에서 유가 나온 진정한 창조 사건이 아니다.) 물질의 근원에 대한 이 믿음에서부터 물질과학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창조주께서 베푸시는 기쁨도 누리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3, 6). -최우성

2008년

- 5/5-8 창조과학 탐사여행 (꿈의 교회, 213-381-1390)
 - 5/10-11 랍포드 한인장로교회 (세미나, 이재만, 815-874-7778), IL
 - 5/14-16 빙하시대 탐사여행 (OMC-목회자, 이재만, 최우성, 213-381-1390)
 - 5/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얼바인 온누리교회, 949-261-9100)
 - 5/18 레이크 한인장로교회 Youth (세미나, 이동용, 630-400-6114), IL
 - 5/19-22 창조과학 탐사여행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713-789-5577)
 - 5/24-26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213-446-2821)
 - 5/24-26 시카고 성경장로교회 (세미나, 이동용, 630-400-6114), IL
 - 5/29-31 창조과학 탐사여행 (글로벌 선교교회, 213-344-6042)
-
- 6/3-5 창조과학 탐사여행 (주님의 영광교회, 714-684-4408)
 - 6/9-12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Conference 목회자, 425-488-1004)
 - 6/13-15 시애틀 형제교회 (세미나, 이재만, 206-661-1179), WA
 - 6/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샌디에고 갈보리교회, 858-717-0544)
 - 6/23-26 창조과학 탐사여행 (동양선교교회, 323-466-1234)
-
- 7/1-5 창조과학 탐사여행 (애들란타 새한장로교회, 404-509-8358)
 - 7/4-5 AIG 창조뮤지엄 관람여행 (시카고출발-AIG뮤지엄,중부팀, 847-845-5368)
 - 7/17-19 창조과학 탐사여행 (모집, 213-381-1390)
 - 7/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터헝가 소망장로교회, 818-331-2481)
 - 7/29-31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GM 사역부, 818-249-3139)
-
- 8/1-3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213-446-2821)
 - 8/4-6 5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 8/7-14 창조과학 탐사여행 (어린이 전도협회)
 - 8/14-16 창조과학 탐사여행 (선한목자 장로교회, 909-772-9233)
 - 8/18-23 창조과학 탐사여행 (House of Siloam, 일본인, 951-245-9500)
 - 8/30-9/1 창조과학 탐사여행 (월셔/얼바인/샌디에고 온누리교회)
-
- 9/5-7 주님의 영광교회 (세미나, 이재만, 213-422-4939), CA
 - 9/8-10 창조과학 탐사여행 (FMNC, 562-305-3726)
 - 9/29-10/1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
- 10/6-8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 10/10-12 한마음 침례교회 (세미나, 이재만, 925-828-3219), CA
 - 10/13-16 빙하시대 탐사여행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713-789-5577)

후원 |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